

관광도 국가 전략산업이다

- '번쩍하는 황홀한 순간'을 위하여



송재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앨빈 토플러나 자크 아탈리 같은 미래학자들은 한결같이 21세기에는 국경을 뛰어넘어 자유로이 오가는, 이른바 '신유목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목산업(관광산업)이 전례없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는 「Tourism 2020 Vision」의 장기전망을 통해 전 세계 국제관광객수는 1995년 5억6천만 명에서 2010년 10억 명, 2020년 15억6천만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1995~2020년까지 연평균 4.1% 증가 전망)하고 있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는 2010년까지 관광산업이 세계 GDP의 11.6%를 점유하고 세계 총 고용의 9%가 관광 관련 산업에서 종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은 관광목적지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이 세계 최대 잠재관광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북아 관광객 수는 2000년 5억17백만 명에서 2010년에 10억93백만 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의 급성장과 소비의 고급화, 개방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10년 약 6천만 명, 2020년 약 1억 명(세계 4위)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광은 고용 및 소득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산업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실은 비행기 한대가 내리면 자동차 1천대를 수출한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평균 3박4일 정도 체류하면서 쓰는 돈이 1천200달러쯤 된다. 1천만 명이 들어오면 120억 달러 정도가 되고 관광산업은 원재료를 거의 쓰지 않는 외화가득률이 88%로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순 외화벌이는 약 1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규모는 상품 수출로 따지면, 외화가득률을 높게 봐주어서 10% 정도이니까 약산해도 1천억 달러쯤 상품을 수출한 효과와 맞먹는 것이 된다. 관광산업은 고용창출효과도 크다. 고용유발계수는 10억 원당 42명으로 제조업 평균 9.6명의 4배 수준에 이른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에 세계 10위권 관광대국 실현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또 작은 지역은 작은 대로, 큰 도시는 도시대로 그들 나름의 비전과 전략을 관광을 통해 실현하고자 경주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혹자는 질문할 것이다. '당장 먹고 살거리를 해결해야 하고, 평생 힘들여 노력해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고, 그리고 '과연 그 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일까'에 관해서도, 그러나 관광은 '연성국력(Soft Power)의 핵심요소' (조셉나이)이자 고용 없는 시대의 신고용 기반이며, 브랜드 경쟁시대의 국가 이미지 제고의 첩병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 때에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며, 어떤 적극적인 정책과 전략을 써서라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조건으로는 결코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우 낙관론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물리적 조건은 그나마 충족시켰으니 다른 경쟁우위요소들만 해결하면 되지 않는가.

드디어 마이너리티들이 주목받는 시대가 되었다. 문화와 관광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고, 지역은 그 원천이 되고 있으며, 아시아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상황은 분명 역전되었

다. 우리의 관광 비전을 실현할 기회가 온 것이며, 이 기회를 활용하여 역전(歷戰)의 용사가 아닌, 역전(逆轉)의 용사가 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열망과 열정은 충분하니 이제 전략적인 눈길로 바라보고 경쟁력을 키우는 손길로 접근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꿈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 우리의 관광 비전은? 한마디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기반으로 아시아의 매력적인 관광한국 건설'이라고 말하고 싶다. 국민의 풍요하고 편안한 삶을 만들어가는 생활 문화 관광의 기반 속에서 아시아인들이 찾고 싶어 하고 아시아를 견인하는 매력적인 관광한국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회기적인 외래객 유치정책 여건을 개선하여 교착상태에 있는 외래관광객들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여야 한다. △종합적인 국민관광 활성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국제관광의 성장극화와 국내관광의 차별화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선택적 집중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리조트개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테마별 관광도시를 육성하고 다각적인 상품개발과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이것은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주민자치에 의해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좋겠고, 나아가 △민간 주도의 관광개발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계적인 관광산업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관광산업 복·융합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관광의 종합정책화를 위한 중앙부처간 협력이 요구된다. 유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되는 등 비효율성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협력이 요구되는 것은 또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거버넌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관광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에 △한반도 관광정책, 즉 북한관광상품을 남한지역에서도 이용 가능토록 남북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그것이 성숙되어 △동북아와 유럽을 연계하는 관광허브로 그 폭을 넓혀 보자. 그것은 남북철도를 연장한 대륙횡단철도에 의한 동북아 육로 관광상품 개발, 한중일 크루즈 및 동북아 크루즈 등의 상품개발이 추진된다면 충분히 꿈꾸어 볼 수 있는, 아니 실현 가능한 과제들이다.

이 때 관광에 문화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재관광'과 '등산관광'을 넘어 이제는 '문화관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 전반의 동반 발전을 위한 협력 틀을 갖추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더욱이 관광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확대는 절실하다. 정부지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투자가 있어야 한다. 투자에 이어 행동(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정책은 시행자에서 조정자로, 직관과 경험에서 합리와 과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관광 주체의 혁신은 두 말 하면 잔소리다.

이렇듯 코리아 희망의 길 찾기는 분명 '관광'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성석제의 소설 제목처럼 '변적하는 황홀한 순간'이 되어 있는 2020년을 그려본다.